

## 결 정

2018 - 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12월 29일 A5면 「무소속 오거돈 독주...與복당이 변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가 확인됐다.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정치적으로 현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핵심 격돌지다. 친여 성향인 오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어 입당 여부가 당내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장관은 28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나는 민주당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오 전 장관이 복당하는 데 결정 사유는 없다”며 “내년 2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복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오 전 장관 복당에 무게를 실었다.

메트릭스가 매일경제 의뢰로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여야 부산시장 후보 12명을 놓고 벌인 다자 조사에서 오 전 장관이 지지율 15.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으로 11.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김영춘 현 해수부 장관 6.4%, 안대희 전 대법관 6.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9% 순이었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출마 여부를 함구하고 있는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은 지지율 3.9%로 6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3.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에 공을 들였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1.2%였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장제국 총장은 조사 기간 중 불출마를 선언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장관과 서 시장을 여야 단일 후보로 놓고 조사한 양자 대결에서는 오 전 장관이 42.9%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27%인 서 시장을 16%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반면 김영춘 장관이 여당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은 10%포인트 떨어진 31.8%로 나타나 27.5%를 기록한 서 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로 줄어든다.

민주당 후보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오 전 장관은 24.3%를 기록하며 9.1%를 받은 김 장관을 15.2%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이호철 전 수석은 한참 뒤떨어진 5.3%였다. 다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이 28.9%에 달해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민주당 후보군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 전 장관과 당내 경선 또는 본선에서 겨뤄볼 만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 전 장관 등 여권 후보가 야권 현역인 서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 선부른 단정은 이르다. 부산은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뒤 한 번도 진보 정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적 없는 ‘보수 텃밭’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야권 후보 중에는 서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강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시장은 14.7%로 1위를 차지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 8.6%, 안철수 대표 8.5%, 김세연 의원 8.1% 순이었다. 이종혁 전 한국당 최고위원과 장제국 총장은 각각 1.5%와 1.0%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서 시장이 야권 2위 후보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홍준표 대표는 친박(박근혜)계 인사인 서 시장 대신 새 인물을 전략공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들였던 안 전 대법관과 장 총장이 지난 2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로써 현재 남아 있는 당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서 시장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 정도가 꼽힌다.

서 시장은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부지런히 바닥표를 다지고 있다. 홍 대표의 전략공천 의지가 확고해도 국내 제2도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경선 없이 선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95년 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5번의 보수정당 부산시장 후보는 모두 경선을 통해 뽑았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의 전략공천으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홍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인 서 시장의 무소속 출마도 점쳐진다. 현재 여권에 표심이 밀리는 상황에서 후보까지 나뉘게 되면 한국당의 부산 수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5930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위 기사는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여야 부산시장 후보 12명을 놓고 벌인 다자 조사에서 이들의 지지율은 오거돈 15.2% 서병수 11.6% 김영춘 6.4% 안철수 5.9% 이호철 3.9% 김세연 3.4% 최인호 1.7% 장제국 1.2%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이번 조사가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거돈과 서병수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서병수와 김영춘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그 순위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가 확인됐다』며 『다자 조사에서 오 전 장관이 지지율 15.2%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2위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으로 11.6%의 지지를 받았다』고 기술해 김영춘(6.4%)보다 앞선 것으로 단정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위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

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